‘초슬림 정부’로 경제살리기 올인

■조직개편 통해 본 李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

정부 권한 민간·지방 이양…규제 개혁 급물살

오랜 산고 끝에 16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정부 조직이 대폭 줄어든 것은 이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중복적인 기능의 과감한 통합과, 부처별로 나눠진 기능의 융합 및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등이 요체다.

이 당선인은 이미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선(先) 변화를 주창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한다.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죄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 이 당선인이 정부 조직개편에 주력했던 것도 결국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공적부문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이 당선인은 신년회견에서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 기능의 통합과 융합, 정부 권한의 민간 및 지방이양 등을 통해 규제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 결국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은 “앞으로 당선인이 규제개혁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도 부처가 나눠져 있으면 규제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전초작업 성격이다. 정부 초기 역량 중 상당 부분을 규제개혁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실용정신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당선인의 강한 실용정신이 든든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과 병행해 대입 선발권 이양 등 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민간, 지방 이양을 함께 추진한 것도 ‘이명박 정부’를 관통하는 이런 실용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실용정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에 불필요한 것은 정부가 끌고 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신 필요한 것은 정부가 과감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세기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효율화, 슬림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행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받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편안 국회 통과 전망은

곳곳서 반발…일부 부처 딜 통해 해결 가능성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회로 모아지게 됐다.

인수위는 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이달 내로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으로 곧 ‘위상’이 바뀌게 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와 법사위 등에서 오는 21~25일까지 처리하고, 28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여권’은 강경한 분위기다. 특히 애초 예상과 달리 통일부가 폐지 대상으로 확정된 데 대해 원내 제 1당인 신당은 물론 ‘햇볕정책’을 추진해 온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137석으로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신당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안”이라는 입장이다.

신당은 인수위가 이 같은 개편안을 2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는 것은 임시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4월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노당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역시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는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신당 등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현재 의석 수는 신당이 137명에 민노당과 민주당이 각각 9명과 6명으로 이들만 해도 전체 의석의 과반(150석)을 충족하는 만큼 세 당에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다만 한나라당이 국민을 상대로 ‘새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신당으로서도 총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국회통과 전망에 기대를 걸게 하는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애초부터 존치를 강조해 온 과기부와 정통부 중 한 곳, 또는 노무현 대통령 대북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통일부를 ‘회생’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치적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

사무총장에 김충조 前의원

민주당 당직 인선 완료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6일 김충조 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완료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송자 의원, 공동대변인에는 언론인 출신인 박찬희 홍보위원장이 선임됐다. /연합뉴스

靑 “조직 개편안, 정부 경쟁력 타격 우려”

청와대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날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고 절차가 부실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수석은 “우리 정부의 조직운영, 과거의 우리 경험,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도 없어 보이고 충분히 검증된 논리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앞서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 폐지 방침에 대해 특히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당면과제를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는 염려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적용될 수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서 외교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유시민 탈당 ‘親盧 신당’ 만드나

대구서 무소속 출마…“유연한 진보” 주장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대구지역 출마를 선언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적 친노 인사인 유시민 의원이 16일 전격 탈당함에 따라 소위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친노 신당’ 창당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대구 출마를 준비중인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총선 이후 ‘선명 야당’을 기치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체성이 모호한 중도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눈 높이를 맞추는 유연한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추진하는 창당 작업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그가 이끌었던 참여정치실천연구회 출신과 이해찬 전 총리 측 인사들이 동반 탈당해 합류하거나 청와대와 참여정부 평가포럼 출신 인사들이 신당 공천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결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창당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첩첩산중’이어서 과연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 정당 창당과 관련, “명분과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언급, 친노그룹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신당 내에서는 이화영 의원 정도가 탈당을 고심중이며 나머지 친노 의원들은 잔류 쪽으로 결심을 굳힌 상태다. 또한, 정체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창당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으며 자금과 인적 자원 등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그룹의 상징인 이 전 총리와 유 의원이 신당을 떠남에 따라 사실상 친노그룹이 소멸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 선출에 이어 친노 핵심 인사들의 연쇄 탈당으로 신당이‘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 “총선 5대범죄 강력 단속”

4·9 총선 현장

5개 선관위 종합대책회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시 및 5개 구 선관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계획 및 제18대 총선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사진〉

시 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비방·흑색선전 ▲돈 선거 ▲사조직 설치·운영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했으며, 불법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

김재균씨 총선 행보

○…김재균 전 북구청장이 16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맞서겠다”며 총선 행보를 본격화.

김 전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호남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원한다”면서 “지역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데 발벗고 나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피력.

민형배씨 광주 광산 출마

○…민형배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은 지난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남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출마를 하게 됐다”고 피력.

민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각료 출신 인사의 광산 출마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중앙의 거물급 인사들이, 거주하지 않고 일한 적도 없는 광주에 온다는 것은 경쟁을 포기하고 안전한 길을 찾는 용기 없는 행동”이라며 “광주가 특정 정치지망생을 위한 ‘대여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한마디.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롬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매월 초(주,야) 현재 강의중(매일 무료청강 환영)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국비무료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529-8111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2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옆 도영빌딩
북구점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한일보 옆 청송빌딩 6층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1위
기본서 이론 2개월 완성 "첫진도 시작반"
개강 1월 15일
주택관리사 첫진도 시작반 2개월 완성
국비무료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수강료환급))) "현재 접수중" (((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정원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금당부동산
☎223-7400 핸 016-632-5659
(위치: 충장로 5가 4거리 코너 2층)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월산동 문화방송국옆. 광주시내 전체를 조망하며,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주변 온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501평 공시지가 5억5500만원 매도7억 조정가능
◉광산구 하남 월곡동 부근 산정동소재 3층집. 주변은 아파트 집단지와 상가지역이 형성되 도심 포교당이나 여스님 운영 사찰로 적합.
대지61평 건평 87평 담보1억4천 매도3억 조정가능
분양권 매매
운암동 벽산블루밍
◉107동 46평형(가운데층) 로얄층 타워형 남향 전망최고 총분양가 2억9천7백만원 계약금: 14,850,000원납부 매:2억9천9백만원

공 시 최 고

아래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8. 4. 28.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사 정 수 경

사건번호	신 청 인	목 록
2007카공 271	문근식 광주 북구 운암동 229 미라보3차아파트 301-1104	약속어음 번호:자가 03294147 금액:금 1,940,000원 발행일:2007년 9월 21일 발행인: 김충호 지급장소:광주은행 순천지점 지급기일:2008년 3월 31일 최후소지인:문근식
2007카공 283	유 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1277	자기앞수표 번호:가나G6007085~91 금액:각금100,000원(7매) 발행일:2007년 11월 30일 발행인:녹동농업협동조합
2007카공 284	박미경 여수시 소호동 424 주은금호아파트 205-1301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1610369~74 금액:각금1,000,000원(6매)발행일:2007년 12월 10일 발행인:광주은행 곡동지점
2007카공 285	박점배 순천시 행동 130-1 (행금목욕탕)	자기앞수표 번호:03528744~45 금액:각금1,000,000원(2매) 번호:18676568~75 금액:각금100,000원(8매) 발행일:2007년 11월 26일 발행인:순천행동우체국 지급장소:순천행동우체국 최후소지인:박점배
2007카공 286	김영희 경기 양주시 덕계동 범양마이빌APT 205-1203	가계수표 번호:아가05180736 금액:금5,000,000원 발행일:2007년 12월 20일 발행인:김석수 발행처:국민은행 순천지점
2007카공 287	이덕주 순천시 조례동 현대5차아파트 502-1402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4743359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1월 15일 발행인:농협중앙회 순천시청출장소
2007카공 288	김주일 순천시 매곡동 197	자기앞수표 번호:바가62916230 금액:금5,000,000원 발행일:2007년 11월 26일 발행인:농협중앙회 시청점
2007카공 290	김정염 여수시 학동 20-14 송달장소:여수시 학동260 만석정육점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4072981~84 금액:각금1,000,000원(4매) 발행일:2007년 12월 14일 발행인: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지급지:전라남도
2007카공 291	김성대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398	자기앞수표 번호:87675325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1월 19일 발행인:농협중앙회 고흥군지부
2007카공 292	서홍석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422-13	자기앞수표 번호:70890092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5년 6월 21일 발행인: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2007카공 293	김항철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996-1(해양수산)	약속어음 번호:자가00151764 금액:미기재 발행일:미기재 발행인:김항철
2007카공 296	임인숙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23-38	자기앞수표 번호:93607806, 93607803~04 금액:각금100,000원(3매) 발행일:2007년 10월 1일 발행인:중소기업은행 여천지점
2007카공 297	안규선 광주 광산구 신월동883-2 현대자 부영APT 306-604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1607474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2월 24일 발행인:광주은행 곡동지점 최후소지인:안규선
2007카공 298	황주열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26-6	자기앞수표 번호:라마35516779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2월 26일 발행인:고흥농업협동조합 최후소지인:황주열
2007카공 299	손인태 광양시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103-1208	자기앞수표 번호:58238973~81 금액:각금100,000원(9매) 발행일:2007년12월27일 발행인:우리은행 광양posco지점
2007카공 300	김재순 순천시 연향동 대우아파트 104-1004	자기앞수표 번호:57914163 발행일:2007년 12월 27일 번호:57915399~400 발행일:2007년 12월 24일 금액:각금100,000원(3매) 발행인:국민은행 연향지점
2008카공 1	박준호 광주 남구 서동 71-12	자기앞수표 번호:57900339~53 금액:각금100,000원(15매) 발행일:2008년 1월1일 발행인:국민은행 연향지점
2008카공 2	황일선 순천시 주암면 갈마리 동촌 395	자기앞수표 번호:13397722~3 금액:각금1,000,000원(2매) 번호:78306766~9 금액:각금100,000원(4매)발행일:2007년 12월 19일 발행인:순천 농협 오천지점
2008카공 3	유정란 순천시 장천동 85-30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698746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2월 13일 발행인: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
2008카공 4	정정례 순천시 남정동 532-15	자기앞수표 번호:87632777 금액:금1,000,000 발행일:2007년 5월 17일 발행인:농협중앙회 여문지점
2008카공 5	김일수 순천시 연향동 1331-8 화이트모텔 503호	자기앞수표 번호:라가22426074~5 금액:각금1,000,000원(2매) 발행일:2007년 12월 28일 발행인: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2008카공 6	장양업 여수시 둔덕동 493-2	가계수표 번호:01905507 금액:금3,000,000원 발행일:2007년 9월 22일 발행인:이근섭
2008카공 7	박종택 진해시 경화동 475	자기앞수표 번호:나나13291785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2월 20일 발행인:한국외환은행 여수지점 최후소지인:박종택
2008카공 8	정계문 광양시 황금동 857-2 송달장소:순천시 가곡동 976-11 새롬원룸201호	자기앞수표 번호:라가0217741 금액:금1,000,000원 발행일:2007년 11월 28일 발행인: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지점 출장소